명덕누리

Myung Duk Nuri

제4호

http://mdfh.or.kr/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7길 34-10 Tel. 02-2665-8818, 8823 **발행인** 남완규 **발행처**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편집인** 동아리 COMP, 박예정(지도교사) **발행일** 10월 15일

WE MAKE BEST RESULT COMP

4기 COMP

중국어과-양수환, 영어과-박정수, 전세연, 독일어과-엄한슬, 프랑스어과-안유정, 홍지연, 러시아어과-최윤정

5기 COMP

중국어과-김율아, 윤준영, 장현민, 독일어과-김영민, 프랑스어과-문시현, 임은지, 임지영, 일본어과-이소정, 러시아어과-신민승, 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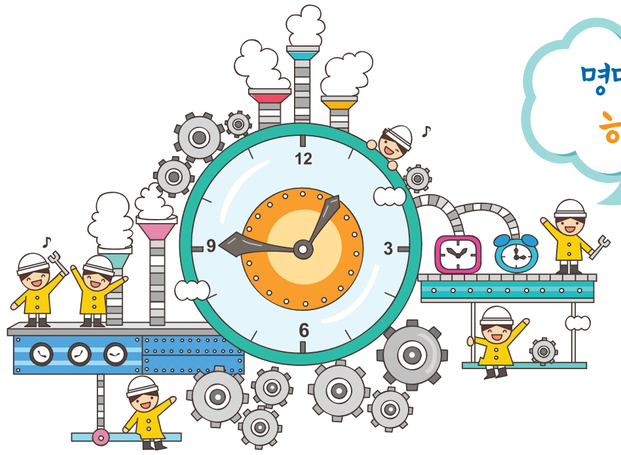
짱 중국어과 양수환: 발에 땀이 나도록 취재하고 기사쓰고 수정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던 명덕누리 제작도 이제 다 끝나게 되었군!! 중학생 진로탐색프로그램부터 학교 대설명회 그리고 명덕누리까지. 진짜 올 한해 어느 누구보다 열일했던 우리 COMP 4&5기 정말 수고 많았어~!! 너희들이 최고야~!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부짱 프랑스어과 안유정: 4번의 대설명회에서 여러분을 가장 먼저 환영하여 맞이하고, 수요일 진로탐색교실을 직접 기획하여 진행하는 저희가 바로 COMP 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COMP가 1년 동안 열심히 취재하고 작성했던 기사들을 모아 이렇게 멋있는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_←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많이 힘들었을 우리 COMP 4&5기 17명 모두..♥ 우리의 노고를 아무도 몰라도 뭣이 중헌디- 우리가 알잖아 제일 고생하고 제일 많이 학교에 봉사한 거!! 정말 수고했어ㅠㅠㅜ 여러분 앞으로도 COMP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COMP..♥ 더 럽...♥

편집장 독일어과 엄한슬: 꼼프 4,5기 수고많았고 중간중간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모두들 수고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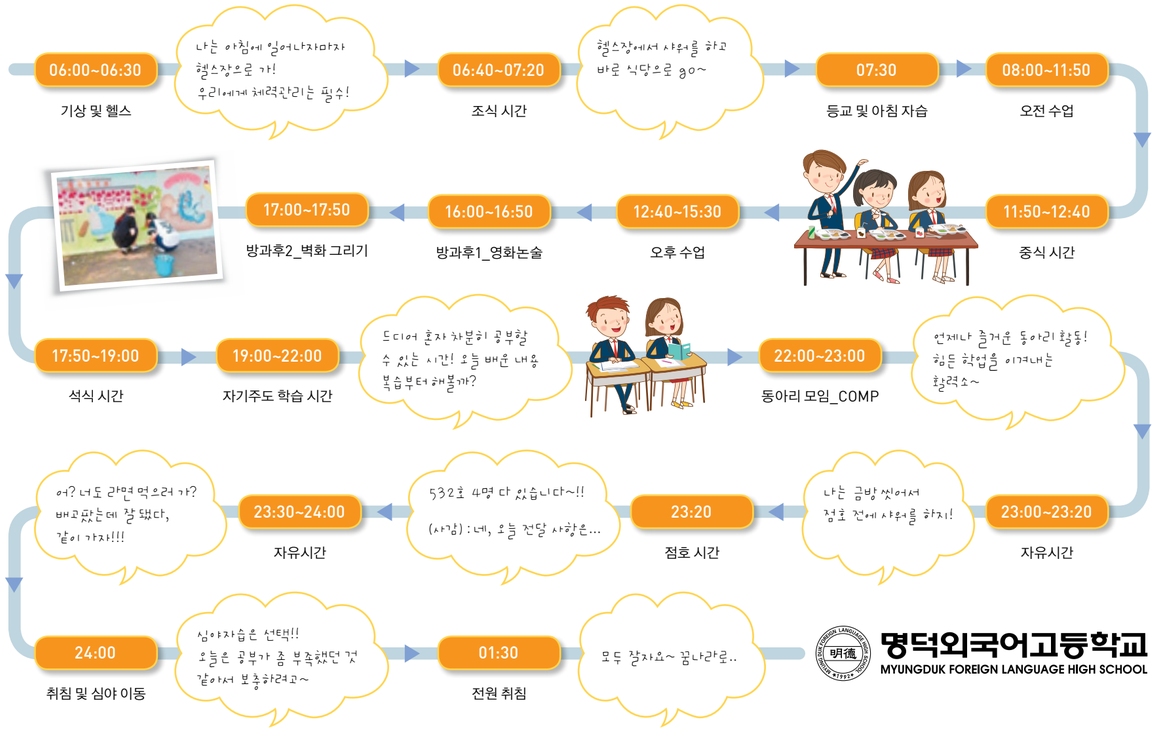
COMP SINCE 2012.

명덕외국어고등학교 MYUNG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명덕인의 하루

"명덕외고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지?
명덕인들 대표해서 나의 하루를 소개할게!
집중해서 잘 따라와!"



명덕인의 하루는 어떨까

6시 점호와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 헬스장에 가는 친구도, 잠을 좀 더 청하는 친구도 있다.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등교한 학생들은, 아침 자습을 하며 수업을 준비하다가 8시부터 정식 수업을 시작한다. 1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오전 수업을 마치고 잠시 점심시간을 가진 후, 또 다시 7교시까지의 오후 수업을 마무리 한다. 4시부터 11시까지는, 본관에 남아 방과후 수업을 듣거나 면학실로 이동해 자습을 하는 등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과후 수업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으며, 방과후 수업이나 동아리 모임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학실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이 의무이다. 11시 20분경, 층 별로 점호시간을 갖고 12시 자정부터 소등 및 취침 시간이다. 하지만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선택적으로 심야 자습을 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면학실과 다목적실 그리고 기숙사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학습 할 수 있다. 시험 기간이 아닌 때에도, 많은 명덕외고 학생들이 심야자습을 하고 있다. 1시 반 부터는 모두가 잠에 들어야 하는 최종 취침 시간이다. 해가 다시 밝아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매일 매일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 명덕인들 앞에 밝은 미래가 보인다.

기자_안유정[프랑스어과], 엄한슬[독일어과], 신민승[러시아어과]

특별수업
ONLY IN 명덕!

1학년 특별 수업 토론

토론 수업에서 학생들은 각각 자료 조사, 논증글 작성, 기조연설 발표, 사회 진행 등의 역할들을 맡아 수행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한다. 한 가지 토론 주제를 정한 후 지정된 두 조가 각각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역할을 맡고 다른 한 조는 사회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학생들은 실제 전문가들처럼 자료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토론장에서는 모두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기 때문에 매우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들이 이어진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배심원들은 토론을 지켜보고 질문하며 열띤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러한 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다른 친구들의 열정을 보고 배우며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기자_김영민[독일어과]

1학년 특별 수업 다문화

교육목표인 글로벌 리더 양성에 걸맞게 명덕외고에서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수업이 있는데, 바로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세계 각국에서 오신 강사 분들께서 명덕외고 학생들을 위해 자국에 대한 다양한 문화 강연을 해주신다. 강연자분들께서는 직접 노래와 춤을 가르쳐주시기도 하고 전통 의상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직접 입어보는 등 명덕외고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 현재까지 벨기에, 터키, 슬로바키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케냐, 멕시코 등 다양한 나라에 대해 듣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강연자와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 수업을 통해 명덕외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세계를 바라보는 폭 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다. 이로 인해 명덕외고 학생들은 세계 각국과 소통하며 교류하는 글로벌 리더의 모습에 한발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기자_이소정[일본어과]

2학년 특별수업 NIE

1학년 진로시간에 다문화 이해 등 다양한 특강을 들었다면, 2학년 학생들에게는 'NIE활동지'가 기다리고 있다. 진로시간은 매주 1시간씩 들었으며 학생들은 이 시간에 준비해 온 기사를 요약하고 어휘를 정리하며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사고의 틀을 확장한다. 기사를 읽고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적는 훈련을 통해 논술을 대비할 수 있으며 글쓰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NIE수업은 10년 이상 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으로 명덕외고만의 특별한 수업으로 손꼽힌다.

기자_엄한슬[독일어과]

2학년 특별수업 실용경제

2학년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실용경제 수업을 수강한다. 실용경제 시간에는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지식을 획득하고 확장하면서 적용하는 체험학습과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짜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즉 경제 신문을 활용하여 관련 문항을 제작하면서 실생활 속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경제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용경제 교과서와 관련 주제 독서활동에 대한 Document study(-content analysis), 창업아이디어 계획을 수립한 후 투자설명회를 갖는 평가 과정이 수업으로 구현된다. 모든 활동은 학생들이 모둠을 이루어 진행되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기자_양수환[중국어과]

기숙사 생활의 꽃,
'MD 스포츠 리그' 개막!

2015년 11월 기숙사가 건립된 이후 명덕외고에서는 한 달에 2번, 토요일마다 MD 스포츠 리그가 개최된다. 점심시간마다 과별 대항전으로 축구와 피구 경기를 즐기던 명덕외고의 스포츠 문화가 발전하여 현재의 MD 스포츠 리그가 탄생하게 되었다. 기숙사가 건립된 이후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스포츠 리그를 운영함으로써 경기 진행과 운영이 훨씬 수월해졌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대회 운영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도맡으며 자치능력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촉박하게 운영되어 왔던 리그가 2주에 한 번 토요일마다 기숙사에서 운영되면서 명덕외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스포츠 리그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축구과 피구뿐이던 경기종목이 농구, 배드민턴, 체스, 오목 등 실내스포츠까지 다양해졌다. MD 스포츠 리그는 지루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 간의 단합력 또한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기자_윤준영[중국어과]

명덕외고에서부터 시작된 '교육 한류'

8월 21일, 중국 학생들 14명이 명덕외고에 도착했다. 그들은 북경신교외고의 한국어과 학생들로 우리학교에서는 영어과와 프랑스어과에서 공부하게 된다. 명덕외고 학생들은 이번 교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새 출발을 앞둔 중국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을 한 번 만나보았다.

Q1 유학을 올 때 명덕외고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A1 처음 학교에서 유학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을 때 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서 면접을 보고 뽑힌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기숙사 시설이 좋아 보여서 명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워낙 중국에서도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더 알아보니 학습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와야겠다고 결정했어요.

Q2 한국어과에 재학하실 때는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A2 한국어 인증시험, 토픽을 준비하면서 단어나 말하기 등을 배웠는데 존댓말과 반말을 구별해야 했기 때문에 문법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중국말과는 다르게 외래어 사용이 적기 때문에 재번역해서 배우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Q3 중국에서 한국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A3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공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니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태양의 후예나 별에서 온 그대처럼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류에도 관심이 많아요.

Q4 명덕외고에 도착해서의 첫 느낌은 어땠나요?

A4 기숙사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모두 예뻤어요 (웃음). 학생들도 모두 친절해 보이고 배려심이 많을 것 같아요. 면학실도 가 봤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Q5 명덕외고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A5 며칠 전에 동아리 발표회를 보게 되었는데 춤 동아리 D.O.H.C. 친구들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도 춤 추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한 번 가입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꿈이 경제, 경영 쪽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분야와 관련된 대회나 행사를 참여해보고 싶어요.

Q6 앞으로 명덕외고 생활에 대해 기대하는 점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6 다양한 활동과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굉장히 기대 돼요.아직은 소통하는 데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서로 도우면서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를 편하게 생각하고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과 중국은 오래 전부터 가까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나라이지만 중국 학생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것은 처음이다. 적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자_임은지[프랑스어과], 이지원[러시아어과]

기숙사시설 Top4+α

4위 다목적실

다목적실은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동아리 활동·조별 수행평가·토론·회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자습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자율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다목적실이다.

3위 세탁시설

일주일 동안 쌓인 빨랫감을 집에 들고 갈 필요가 없게 해 주는 중요한 시설이 바로 세탁시설이다. 학생들이 세탁시설을 잘 쓰지 않을 것 같지만, 점호가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야만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학생들이 애용하는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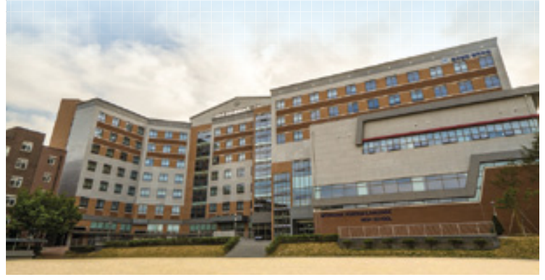
2위 체육시설

명덕외고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스포츠 클럽을 만들어 활동할 만큼 운동도 열심히 하며 체력을 관리한다. 그렇기에 헬스장과 탁구장 등의 체육시설은 정말 유용한 시설이다.

1위 라면자판기

밤 11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출출하고 허전해지기 마련이다. 바로 이럴 때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라면을 끓여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점호가 끝나자마자 달려나가도 콘서트 줄처럼 긴 줄이 서 있는 것이 다반사다.

기자_양수환[중국어과], 전세연[영어과], 홍지연[프랑스어과], 최윤정[러시아어과]



달려라 명덕!

2016년 5월 4일, 명덕외고 체육대회의 날이 밝았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행사인 만큼, 개회운동장에 들어서는 1, 2학년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설렘이 가득 차 있었다. 강풍도 명덕외고 학생들의 열정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국기를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각 과의 멋진 행진들이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렸고 명덕외고 사물동아리 '쾌'의 신명나는 공연은 체육대회의 시작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다. 체육대회는 명덕외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연중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축구, 피구, 발야구, 치어리딩, 닭싸움, 풋살, 단체줄넘기 등의 종목이 있으며, 투호나 주사위 던지기 등 다양한 미니게임도 진행되었다. 과별로 선배와 후배가 단합을 이루는 시간이었으며 출전선수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열띤 경기를 통해 증명하였다. 명덕외고 학생들은 체육대회 2주 전부터 대회준비를 시작하여 각 종목별로 출전선수들끼리 모여 틈틈이 연습한다.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을 이끌며 각 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직접 과티와 응원구호를 만들며 과의 결속을 다진다. 특히 명덕외고의 체육대회는 학생자치의 주체적인 행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체육대회 자치위원'의 선발을 통해 운영방식과 진행절차에 대해 꾸준한 회의를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내고 조율해 가며 더욱 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 체육대회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다양한 경기에 참여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날이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은 영불과, 준우승은 독일어과가 차지하였다. 영불과의 박정우 학생은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힘들고 연습도 많이 잡혀있어서 바쁘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런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였다. 또 독일어과의 양수빈 학생은 "우리가 아깝게 준우승을 해서 너무 아쉽다. 다음번에는 꼭 열심히 노력하여 우승을 노려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각 종목 경기가 끝난 뒤 학생들은 기쁨과 아쉬움의 탄성을 질렀는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아쉬움이 그만큼 컸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경기가 끝난 후 학생들은 승패에 상관없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2016년 체육대회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기자_임지영[프랑스어과], 홍지연[프랑스어과], 김영민[독일어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in MDFH
'학교 담장 벽화그리기'

매일 아침 학생들이 페인트 통과 붓을 들고 학교를 나선다.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명덕외고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쉽게 접해보지 못할 법한 수업들이 진행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벽화 그리기 수업이다. 급식실 옆 어깨 높이의 담벼락 주위에는 벽화를 그리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담벼락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려나간다. 앨리스가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러시아 6개 나라를 여행하는 형식의 스토리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벽화그리기 수업은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진다. 주제선정부터 스케치, 채색 등 전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업을 하게 되며, 학생 개개인에게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된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벽화 그리기 수업에 참여했던 2학년 중국어과 고서영 학생은 미술전공이 아니어서 색 조합이나 배합 조화미를 맞추는 것이 힘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열심히 그린 벽화를 많은 학생들이 감상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명덕외고이였기에 가능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벽화는 명덕외고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명덕외고에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자_박정수[영어과]

SPECIAL & UNIQUE 영화논술

방과 후 수강신청이 시작되는 시간. 마우스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니, 바로 〈영화논술〉이다. 그렇다면 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

지금부터 집중탐구 해보도록 하자.

〈영화논술〉은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수업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영화를 감상한 후에 4인 1조를 이뤄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질문지를 토대로 토론을 한다. 흔하게 잘 알려진 작품보다는 생소하고 낯선 작품들을 주로 감상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식을 가진 영화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하게 줄거리와 느낀 점에 대해서가 아닌, 그 영화에 담긴 시대적 배경이나 감독의 사상, 그리고 주인공들의 대사나 행동에 담긴 의미에 대해 분석하는 토론인 만큼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며 동시에 사고력도 넓힐 수 있다.

영화는 세상을 더 많이 알고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이다. 하루하루 바쁜 학업에 치여 평소에 영화를 자주 관람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문화생활은 물론이고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길러주는 수업 〈영화논술〉의 인기가 좋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기자_이지원[러시아어과]

다재다능한 명덕! 동아리 발표회

일 년에 딱 한 번! 공연 동아리 학생들이 재능과 끼를 한껏 자랑할 수 있는 동아리발표회가 있다. 올해 동아리 발표회는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렸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미남 미녀 MC들의 재치 있는 진행 속에서 재미있는 공연들이 이어졌다.

첫 번째 순서는 사물놀이 동아리 패로 학생들은 자신의 친구들을 응원하며 열띤 호응과 함성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동아리 발표회의 시작을 알렸다. 패는 매년 명덕외고 동아리 발표회의 오프닝을 책임지고 있으며 뛰어난 실력으로 매년 다른 퍼포먼스를 준비한다. 뒤이어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서 빠질 수 없는 영어연극동아리인 잉글잉글의 무대가 이어졌는데, 재미있는 스토리 구성으로 모든 학생들이 숨죽이고 보았다. 그 외에도 광고 패러디 영상 제작 동아리 AD here와 난타 동아리인 BEAT 그리고 1부의 엔딩을 장식한 Geroy의 뛰어난 공연이 진행되었다.

명덕외고 동아리 발표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함께 즐기는 무대로 2부의 오프닝은 교사동아리인 허즈밴드가 분위기를 띄웠고 오케스트라 동아리 우리와 영화 제작 동아리 CINEPHILE, 연극동아리 막이 뒤를 이었다. 동아리 발표회의 꽃인 댄스동아리 DOHC와 힙합동아리 TS2, 보컬하모니 동아리 WITH가 공연을 하며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매년 동아리 발표회의 피날레를 장식한 밴드 동아리 M.PEOPLE을 끝으로 모든 동아리들이 뛰어난 공연을 보여주며 이번 동아리 발표회 역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올해 동아리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는 동아리자치위원회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동아리자치위원회는 더 나은 동아리 발표회를 위해 수많은 회의를 걸쳐 사회자를 뽑고 무대를 꾸미며 직접 강서구민회관에 답사를 다녀오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기자_안유정(프랑스어과), 엄한슬(독일어과)

명덕, 이것이 궁금해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덕외고에 재학중인 선배들의 경험담일 뿐, 명덕외고 입시의 정답 혹은 필수사항이 아님을 밝힙니다!

Q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A 자기소개서 작성의 시작은 일단 무조건 써보는 것이 좋아요. 먼저, 생각이 나는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나열한 후 그 중에서 일정한 맥락과 스토리에 따라 쓸 내용을 고른 후 재배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쓰기보다는 많은 검열과정을 거침으로써 여러 번 자신의 글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접에서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솔직하고 진실된 내용을 쓰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답니다~

Q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먼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여러 개 생각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실제 면접처럼 연습해보고,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하면서 어색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입학 전에 전공어 공부를 하고 가야하나요?

A 사실 전공어 수업은 가장 기초가 되는 알파벳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불어 회화 수업을 비롯한 학교 수업과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해 누구나 충분히 HSK, DELF, ZD 등의 공인 인증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정도까지만 공부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워낙 잘 가르쳐주셔서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된다면 방학기간을 잘 활용하여 기초적인 전공어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Q 명덕외고만의 장점이 무엇이 있나요?

A 특화된 영어와 전공어 수업부터 높은 진학률, 다양한 학생 위주의 활동들까지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점으로는 전교생 수용가능한 기숙사를 꼽을수 있겠죠! 기숙사에는 면학실과 다양한 자율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실이 있으며 헬스장 또한 마련되어 있답니다.

Q 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이 중요한가요?

A 독서활동은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매개체로 자소서에 녹여쓰면 다양한 주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탐구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더불어 생활기록부 독서활동기록을 위한 감상문을 작성할 때 자신의 진로와 연관지어 써준다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독서가 아닌 책을 읽게 된 계기나 읽은 후 변화한 점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당 도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의미있는 독서활동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자_임은지(프랑스어과), 장현민(중국어과)

세계적인 인재의 첫걸음, 명덕외고 학술제

공연동아리에게 동아리 발표회가 있다면, 학술 동아리에겐 학술제가 있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제출하면, 전문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결정된다. 수상한 팀 뿐만 아니라 수상을 하지 못한 팀들도 각각 논문 내용을 포럼 형식으로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한다. 학술제의 힘든 준비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이 발휘된다. 또한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된다.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도 관심 있는 주제의 발표를 골라 들을 수 있다. 지난 7월 12일 학술발표회에서는 자율동아리 STEP의 '학습 성향 및 학습 전략 비교를 통한 한국 교육과정 속 성적 우수자 특징 분석'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학술 포럼에서는 VERITAS의 'Luxury Paradox' 등 많은 동아리가 재밌고 심층적인 주제를 다루었다.

기자_안유정(프랑스어과)

지난 여름방학동안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명덕외고 MCLC가 진행되었다. MCLC는 "Myungduk Creative Leadership Camp"로 명덕외고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창의 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캠프는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11일간 통학하며 명덕외고 기숙사에서 진행되었다. MCLC는 책임감있는 글로벌 양성을 위해 참가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정보탐색 및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명덕외고 재학생 및 사회 각 계에 진출한 졸업생들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특별강연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롤모델 확립과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수업은 Creative Reading, Intensive Writing & Debate, 그리고 Creative Mission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양한 영어기사를 읽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적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금방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나서며 즐거운 학습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또한 팀별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Creative Mission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적인 활동 이외에도 참가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고 자신과 잘 맞는 직업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명덕외고 재학생들의 멘토링 시간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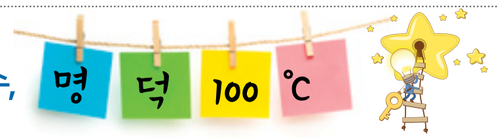
캠프에 참가했던 박희주 학생은 "2주동안 2016 명덕외고 MCLC캠프를 하면서 영어도 많이 배웠고, 대인관계, 화를 푸는 법,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법, 친구를 위로하는 법 등과 같이 인간성도 배우게 된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친구들과 캠프의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았겠다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또한 캠프를 통해 방학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후기를 남겼다. 참가 학생들 중 다수는 명덕외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었고 캠프에 참가하면서 명덕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은 영어로 진행되고 계속되는 시험으로 인해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조원들과 토론, 창의미션 등 참여형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며 재미있게 캠프를 마쳤다고 후기를 남겼다. 많은 학생들은 MCLC캠프를 계기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었던 MCLC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2017년 1월 초에 다시 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MCLC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자_엄한슬(독일어과)

1. 원어민 선생님들
2. 명덕외고 졸업생이자 학생들의 멘토
3. 리딩, 리스닝, 스피킹 총 세 번에 걸친 레벨테스트
4. 기사를 읽고 특정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에세이를 쓰는 활동

선배의 한수, 명 덕 100 ℃



교정에는 벚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봄, 명덕외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잠시 미뤄두었던 진로탐색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016 동문초청 명덕포럼, 선배의 한수&명덕 100℃'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명덕외고 선배님들이 후배인 재학생들에게 직접 전공에 대한 설명과 조언을 해주는 강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해에는 4월 26일, 4월 30일, 5월 14일 총 3회차로 구성되었는데, 아홉 분의 선배님들이 세 분씩 팀을 이뤄 각 회차를 꾸며주셨다. 지난 4월 26일에는 서울가정법원상담위원을 맡고 계신 신윤정 선배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이상무 선배님, 한국 상담학회 상담전문가이신 정여주 선배님께서 참여하셔서 상담심리학과 교육학 전공에 대한 강연을 해 주셨다. 선배님들은 단순한 전공 지식보다도 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내용,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과정 등을 경험담과 곁들여 설명해주셨다. 신윤정 선배님께서는 언어학을 선택했다가 심리학으로 방향을 틀게 된 과정, 유학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며 아직 진로가 불확실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조언을 해 주셨다. 이상무 선배님께서는 전현무 선배님과 함께 했던 학교생활 이야기로 분위기를 돋우시며, 교사뿐 아니라 교육 행정직도 제도의 변화와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직업임을 일깨워 주셨다. 또한 청소년 비행 상담 등을 연구하시는 정여주 선배님께서는 상담심리는 상담받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는 공감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당신이 생각한 상담의 정의를 말씀해주셨다. 이처럼 각 전공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들과 함께, 선배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재학생들에게 성의 있는 답변과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들과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던 선배들의 조언이라 공감할 수 있었으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명덕 100℃ 강연은 명덕외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한 층 더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기자_문시현(프랑스어과), 전세연(영어과)

CONNECT

하나되어 함께하는 명덕 총동문회!

명덕외고를 졸업한 선배들은 정치, 경제,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랑스레 명덕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또한 명덕외고에 재학 중인 후배들을 위해 다양한 강연과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를 위해 나서주시곤 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명덕외고 총동문회가 있다. 구성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무서울 정도로 빠른 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동문회의 현재 모습과 그 앞날을 알아보고자 명덕외고 총동문회장이신 명덕외고 1기 러시아어과 임상준 선배를 만나 뵈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어과 1회 졸업생이자 명덕외고 총동문회장 임상준이라고 합니다.

Q 명덕외고 총동문회의 계획 혹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현재, 명덕외고 졸업생들의 교류의 장, 향후 각종 수익사업, 장학사업 등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졸업생 동문과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 중입니다.

Q 명덕외고만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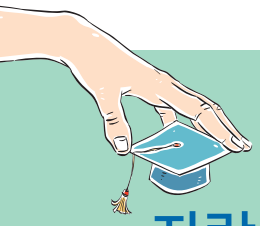
A 명덕외고에는 경험이 많고 유능한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시고, 최근 기숙사 개관 등에서 보듯이 시설투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학교와 동문회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도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Q 명덕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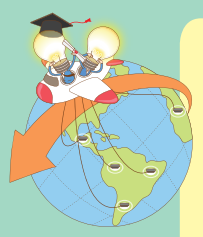
A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만, 어느 학교에도 부럽지 않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역량 있는 선생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졸업생 선배들도 고등학생 시절의 배움과 경험을 자양분 삼아 사회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빛나게 될 명덕외국어고등학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명덕외고 선배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자랑스러운 결과가 후배들의 앞길에 환한 빛을 비추어 준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재학생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진출하고 성공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더욱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동문회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이다.

기자_양수환(중국어과)



자랑스러운 나의 모교, 명덕외고!



명덕외고를 갓 졸업한 선배들은 현재 다양한 대학교의 다양한 과에서 공부하며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계신다. 그렇다면 과연 명덕외고에서의 어떤 경험과 활동들이 대학교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신 명덕외고 22기 프랑스어과 신정민 선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재학 중이신 21기 프랑스어과 윤아람 선배를 만나보았다.

윤아람 선배

Q 명덕외고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셨던 활동은 어떤 것들인가요?

A 3학년 때 했던 진로활동은, 입시에 굉장히 가까워있었던 때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5~6명으로 이루어진 조에 각각 대학교에 진학하신 선배님 한 분이 멘토로 오셔서 입시 관련 얘기도 해주시고, 조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진로활동에 굉장히 열을 올렸었죠. 저 같은 경우는, 각각 외교, 심리, 법, 사회, 교육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간학문적 접근을 통해 사회문제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보는 활동을 했었어요.

Q 명덕외고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대학교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A 명덕외고에서 했던 여러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했던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이런 것이 대학에 가서 의견을 피력해야 할 때나 의견의 조율이 필요할 때 조리 있게 말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명덕에 영상을 제작해야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한 경험이 있다면, 대학교과 생활이나 동아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인재가 된답니다^^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빨리 졸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졸업하고 나니 친구들과 그렇게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여러 일들을 함께 할 때가 없더라고요.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겠지만,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Q 나에게 명덕외고란?

A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음.. 뗄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명덕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될 소중한 사람들로 남아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겪은 많은 일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신정민 선배

Q 명덕외고의 어떤 점들이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나요?

A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이었어요. 교실도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한데, 자잘한 시설들이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정수기가 각 반마다 한 대씩 설치되어 있어서 물이나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마다 바로 바로 마실 수 있었던 게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또,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칠판이 물로 지워지는 자동 칠판인데 정말 깨끗하게 지워져서 판서를 볼 때 눈에 확확 잘 들어왔어요.

Q 어떤 프로그램들이 대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었나요?

A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는 3학년 때 선배 멘토링에 참여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학교에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줘요. 학교에서 여는 대회도 굉장히 많고, 전공심화와 같은 유익한 강의들도 많아서 생기부를 빵빵하게 채울 수 있어요. 또,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예를 들자면 자율 동아리나 자치위원회 활동이 많아서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Q 명덕외고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대학교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A 명덕외고에서는 발표 수업을 많이 해서 조별과제를 할 때나 PPT 만들 때 정말 편해요. 특히 수행평가를 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들과 노하우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 외국어를 배운 것도 도움이 돼요. 지금은 내신 따기에 급급하다고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중요한 무기를 장착한 게 되더라고요. 전공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Q 나에게 명덕외고란?

A 좋은 추억이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해외문화탐방이나 체육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같이 하는 활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억으로 남은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기자_임지영(프랑스어과)